

학생 예술적 잠재력 ‘만끽’

내일 ‘2025 전북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 본선… 도민 누구나 무료 관람 가능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2025 전북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우리학교 원 PICK!)’ 본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예능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JTJ 전주방송이 주관한다. 본선대회에는 보컬, 댄스, 랩, 밴드,

뮤지컬 등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개팀이 참가한다. 본선 진출자는 △파소(전주제일고) △한은경(전주예술고) △U키즈크루(전주송전초, 전주인봉초, 전주오송초, 전주자연초) △임수진(푸른꿈고) △언홀리(덕암정보고) △환영(성원고) △모노케이스(글로벌학산고) △조정연(한들고) △가온밴드(군산고, 군산영광여고, 군산동고) △4U2Z(원광여중, 이리여고, 이일여중) △이민준(남성고), IU주니어크루(전주화정중, 전주이중중, 전주솔빛중, 전주서문초) 등이다. 이 행사에는 래퍼 한해와 JTJ 이수

민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비오(BE)·82메이저(82MAJOR)·글레이어즈·글로벌리어스 등이 초청가수로 함께한다. 본선대회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은 전북교육의 자랑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예술 문화를 이끌어 갈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학교 안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1일 전북대학교를 찾은 우즈베키스탄 기묘국제대학 대표단이 전북대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양오봉 총장 등 전북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우즈벡 기묘국제대학과 국제교류 협력

2+2 복수학위제 · 교환학생 추진 · 공동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우즈베키스탄 기묘국제대학(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이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 복수학위제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기묘국제대학 Vakhobov Alisher Vaskovich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은 지난 21일 본교를 방문해 업무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일 양오봉 총장이 기묘국제대학을 방문한 때 따른 답방 형식으로, 실질적 협력 논의가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2 복수학위제도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진에 뜻을 모았다. 또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보건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방문에서 기묘국제대학 대표단은 전북대 캠퍼스 주요 시설과 전북대 병원을 둘러보며 대학의 첨단 교육 및 의료 인프라를 확인했다. 특히 전북대 병원의 높은 의료 역량과 국제화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의 우수한 교

육·의료 인프라와 기묘국제대학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양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부응하고, 유학생 5천 명 유치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묘국제대학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최초의 사립 국제대학으로, 국제 교류와 복수학위 운영에 강점을 가진 고등교육기관이다. 최근 과학·공학·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며 해외 유수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확충해 중앙아시아의 교육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좋아하는 일 찾는 여정’ | 전주대, 육육걸즈 박예나 대표 초청 특강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는 지난 22일 지역 대표 온라인 쇼피몰인 ㈜육육걸즈 박예나 대표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전주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창업을 시작했으며, 2011년 전주대 패션산업학과에 입학했다. 현재는 110여 명의 직원을 고용, 매출 600억원을 넘는 ㈜육육걸즈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나눔 활동과 지역 공헌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모교 장학금 기부,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 복구, 여성·청소년을 위한 자신 등 선한 영향력을 갖춘 모범적 패션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특강에서 박예나 대표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16살 때 시작한 창업부터 18년간 패션으로 살아온 본인의 스토리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특히, 패션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틈새시장을 발굴해 브랜드를 성장시킨 과정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예나 대표는 특강에서 “첫 번째는 고객에 대한 진정성이다. 창업

초기 구입한 고객들에게 손 편지를 보냈던 그 마음으로 지금도 기업을 운영한다. 두 번째는 속도다.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에서 트렌드와 고객의 소리에 맞추려는 마음을 빠른 속도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라. 창업 초기 55사이즈 이하를 만드는 기업이 많았는데, 왜 66사이즈는 없지? 라는 생각이 지금의 육육걸즈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주정아 교수는 “전주대 패션산업

학과는 창업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베트남 시장을 타겟팅한 제품 디자인 및 팝업스토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의 실질적 경험은 학생들의 비즈니스 역량과 창업 노하우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생존분석 모형 확률 정합성 개선

전북대 · 연세대 연구팀, 새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 개발
‘NeurIPS 2025’에 논문 채택… 글로벌 연구 경쟁력 입증

전북대학교 김광수 교수(통계학과·(사)한국인공지능학회 부회장, 사진) 연구팀과 연세대학교 강상욱 교수(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연구팀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이 생존분석 모형의 확률 정합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 KSP(Kolmogorov-Srnimov metric-based Post-Hoc Calibration)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이번 12월 미국 샌디에이고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인공지능 분야의 최상위 학회 NeurIPS 2025에 논문으로 채택됐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심층 신경망의 도입으로 관별력이 향상됐으나, 실제 위험확률과 예측 확률의 불일치 정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연구진은 Kolmogorov-Srnimov metric (KS metric)에 주목해 KS

metric을 개량한 KS-cal이라는 측도와 KSP를 제안했다. KSP는 로짓(logit)과 같이 단조 증가하는 연결함수를 이용한 예측된 누적분포함수를 변환하고 이를 통해 KS-cal을 최소화하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사후 보정 프레임워크다. KSP로 이미 확보된 관별력의 희생이 거의 없이 기존의 어떤 방법들보다 더 높은 확률 정합성을 달성했고, 다른 방법들과 달리 KSP는 구간을 정하거나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정이 없어 표본 크기에 따른 추론 시간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DeepSurv, MTLR 등 6개 모형과 WHAS, METABRIC 등 10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조합한 총 60개 설정 중 약 70%에서 KSP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다른 경우에도 동급의 성능을 보여 강건성을 입증했다. 또한, KSP는 생존분석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 가능한 간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 인공지능을 통한 위험 관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교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번 NeurIPS 2025에 3만여 편의 논문을 투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마 역대 최대 규모의 학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학회에 논문이 채택돼 2~3년간 노력해 온 연구가 성과를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내의 및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과 협력과 여러 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내일은 ‘독도의 날’… 교육영상 나왔다

전북교육청, 초등생용 역사 보조교재 영상 콘텐츠 제작 · 배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초등학생용 역사 보조교재 영상 콘텐츠 ‘우리 땅, 독도’를 제작 ·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영상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는 캐릭터와 실사 영상, 사진·삽화를 결합한 다큐멘터리 형식과 애니메이션 스토리로 구성됐다. 특히 일본의 왜곡된 독도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지리적 근거 및 독도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했다. 이 영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제일고등학교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마지막 날 핸드볼 남자 18세 이하부 결승전에서 청주공업고등학교를 32대 24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주제일고, 전국체전 핸드볼 우승

충북 청주공고에 32-24 완승… 전북 학생체육 빛나는 결실

전북제일고등학교(교장 조형익)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마지막 날 핸드볼 남자 18세 이하부 결승전에서 청주공업고등학교를 32대 24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제일고는 이날 부산 스포월드극 금정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며 12점차 리드했다.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속공 전개로 상대의 공격을 완벽히 차단하며 경기 흐름을 장악했고, 후반전에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점수 차를 유지하며 승리를 굳혔다. 전북제일고의 금메달은 대회 마지막 날 장식한 전북 학생체육의 빛나는 결

실로 평가된다. 주전 선수 김성민은 발가락 골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경기에 출전, 동료들에게 큰 감동과 의지를 불어넣었다. 이번 성과는 전북제일고의 탄탄한 기본기와 조직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대회 전부터 선수들의 기초 체력 강화와 전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 환경 개선, 영양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현장 지원팀을 중심으로 선수단 컨디션과 경기 일정을 세밀하게 관리하며 경기력 유지에 힘써왔다. /장은성 기자

2026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학부모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지정한 영재교육기관 27곳은 총 1,864명의 학생을 선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11월 11~18일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통해 개발자로 할 수 있다. 입학전형은 해당 영재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성혜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센터장의 초청 강도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 공 · 사립유치원 유아모집 내달 3일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부터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을 통해 2026학년도 공 · 사립유치원 신입생 우선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은 유치원 입학과 어린이집 입소 서비스를 통합해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보육기관을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에 학부모는 유보통합포털에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한 후 모집 유형별(우선·일반·추가)로 최대 3개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우선모집 자격·순위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모집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자격 미충족 또는 증명 미제출 시 우선모집에서 제외돼 선발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관련,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27일까지 공사립유치원 입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연수를 열고 △선발 절차 △자료 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4인 4색’ 세 번째 특강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창조나래 3층 시청각실에서 중등 교장(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중등 학력신장 4인 4색’ 세 번째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인 4색 특강’은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배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교사의 수업 역량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께 키우는 데 목적을 뒀다. 3차 특강은 (사)함께교육 한국협동학습센터 백선아 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교사 전문성 레벨 업(Level Up)’을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실 속 학습코칭’의 실제 사례를 안내했다. 학생들의 학습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학생 △목표가 뚜렷한 학생 △관계 중심의 학생 △자유로운 성향의 학생 등으로 나눠 각각의 성향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와 피드백 방법을 제시했다. 백 소장은 “교실 속 학습코칭은 학생들의 학습유형을 이해하고, 공부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와,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훈련하는 것”이라며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1월에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주제로 마지막 4차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